

R-22. 치주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관련성에 대한 임상적 연구

이준호, 정현주, 김영준, 김옥수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허혈성 심장질환은 세계적으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치주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급성 심장질환이나 재발에 대한 치주질환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이번 연구에서는 치주질환과 허혈성 심장질환과의 연관성 및 급성 심장질환 및 재발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재료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 내원하여 심혈관조영술을 시술받은 사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50% 이상의 혈관협착을 보이는 사람을 질환군으로 혈관협착이 없는 환자를 대조군으로 분류하였다. 임상치주검사에서 염증지수, 치태지수, 치주낭깊이, 임상부착수준, 탐침시 출혈이 검사되었고 군 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질환군과 대조군의 비교에 있어서 치주상태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급성과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비교하였을 때 급성 심장질환군에서 평균 치주낭깊이와 4, 6mm 이상의 치주낭깊이를 보이는 부위의 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재발율을 치주질환의 심도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재발율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부터 치주질환의 심도는 모든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현과 연관성이 있기보다는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현에 유의하게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